

대구주보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
(가정 성화 주간)

2014. 12. 28 (가해) 제1924호

전례와 선교의 활성화 ·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매진합니다

편집 및 발행 | 천주교대구대교구 문화홍보실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4길 112(남산동) _053)250-3048~9 _<http://www.daegujobo.or.kr>



교구청 내 안익사
사진 _ 홍창익 비오 신부

† 오늘의 전례

“아기는 자라면서 지혜가 충만해졌다.” (루카 2,22-40 참조)

2014년의 마지막 주일인 오늘은 성가정 축일이자 가정 성화 주간의 첫날입니다. 하느님이신 주 예수님께서 거룩하시므로 성모님과 요셉 성인께서 예수님과 함께 이루신 가정을 성가정, 즉 거룩한 가정이라 부릅니다. 우리도 오늘 성체를 모시고 집에 돌아가면 우리 집에 예수님을 모시게 됩니다. 집안에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 줄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도 성가정을 이룰 것입니다.

제1독서 집회 3,2-6.12-14

제2독서 콜로 3,12-21

복음 루카 2,22-40

입당송 목자들은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운 아기를 보았네.

화답송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영성체송 우리 하느님이 세상에 나타나시어, 사람들과 함께 사셨네.



성가정과 십자가

최종현 베드로 신부 | 효성초등학교 교장

오늘은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자 성가정 주일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하기 위해 결혼을 하고 가정도 가집니다. 그러면 결혼하여 가정만 가지면 행복하냐고 물으면 나이가 들수록 그렇지 않다고 답합니다. 오늘날 개인주의 물질주의 영향으로 대화 없는 가정, 사랑과 존중이 없는 가정들이 늘고 있고 심지어 많은 가정들이 신뢰와 사랑보다 실망과 미움에 묶여 고통스런 가정사를 삽니다. 한 해에 혼인한 가정 30% 가까이가 이혼하는 것을 보면 행복한 성가정을 이룬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 듯합니다.

가정은 하느님께서 제정하신 것으로, 하느님의 창조사업이 이루어지고 하느님의 위대한 이웃 사랑의 계명이 가장 가까이 실현되는 장소입니다. 그러기에 성가정의 가장 중심적인 가치는 하느님의 사랑이 가족 구성원들 안에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성탄을 통해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은 우리에게 겸손과 섬김의 사랑을 몸소 보여 주셨고 또 감성적 사랑이 아니라 원수마저도 용서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각 가정에는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은 장식이나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십자가의 사랑을 살라는 뜻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사는 가정은 자신이 손해 보는 양보와 희생의 십자가를 집니다. 이런 가정들은 서로 제 고집대로, 욕심대로 하면서 다투거나 갈라지는 일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사는 가정은 예수님처럼 자신보다도 상대를 더 배려하고 섬기는 삶을 삽니다. 이런

가정은 자기만 대접받고 자기만 편한 것을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도와주고 봉사하는 삶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또 십자가의 사랑을 사는 가정은 우리를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는 주님처럼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의 부족함과 허물도 품어주고 용서하는 십자가를 집니다.

이렇듯 십자가는 성가정의 바탕입니다. 사람들은 성가정이라고 하면 고통도 없는 가정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 마리아, 요셉의 가정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가정도 우리네처럼 많은 갈등과 고통을 안고 있었지만 이 가정을 우리는 성가정이라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들은 많은 어려움과 갈등 속에서도 자신의 뜻과 이익을 찾지 않고 주님의 뜻을 찾았고 어려움과 갈등을 신앙의 힘으로 극복하며 살았습니다. 이 세상에 갈등 없는 가정은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돈 걱정, 자식 걱정, 고부 갈등, 부부 갈등 속에 놓인 가정들이 즐비합니다. 성가정은 고통이 없는 가정이 아니라 주님을 모심으로써 주님의 도우심을 얻어 고통을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 가정일 것입니다. 인간은 약합니다. 사랑의 주인이신 주님께 기도하는 가정은 주님의 축복 안에 성가정을 이루는 지혜와 능력을 얻을 것입니다. 오늘 성가정 축일에 모든 가족구성원들이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뜻을 잘 받들어 주님이 보여주신 성가정의 모델을 기쁘게 따라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필로**

한국천주교주교회의 2014년 가정성화주간 담화문(요약)

가정과 가난

여러분 모두와 함께 성탄의 기쁨을 나누며 여러분 가정에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이 시대는 모든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면서 인간 삶이 그 어느 때보다 윤택해졌습니다. 그렇지만 “가난한 이들은 늘 우리 곁에 있으며”(마태 26,11 참조), 가난한 모습은 세상 어디서나 목격되고 있습니다. 가난의 진정한 문제는 인간의 존엄에 어긋나는 사회적, 심리적, 문화적 요인들로 인해 악순환 되는 데 있습니다. 막대한 부를 소유한 소수는 더욱더 부를 축적하는 반면에 그 옆에서는 비참한 빈곤이 자라납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번영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 가난, 외로움, 희망 없는 절망감 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적잖은 가정들이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으며, 살기 위해서 인간의 품위마저 저버린 채 고군분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가정이라 해도 올바른 가치관과 윤리의식이 결여되어 있다면 그 가정은 건강하지 못합니다. 가정이 올바르게 서지 못하면 사회도 제대로 서지 못하고, 사회가 올바르게 서지 못하면 그 영향은 고스란히 가정에 전달됩니다.

이 시대 가정들이 떠안은 어려움들은 교회와 사회의 미래인 가정에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동시에 가정의 본래 모습을 생각하고 가정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용기를 내어 혼인의 신비로움과 가정의 아름다움을 선포하라는 표징이자 초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받고 있는 도전과 위기는 선교하는 교회, 세상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

가는 교회, 특히 사회의 변두리로 향하는 교회가 되라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강력한 요청이기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요한 15,12)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랑은 ‘참된 사랑’이었습니다. 가난한 이웃들을 먼저 찾아가는 사랑이었고, 벼를 위하여 묵숨마저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랑(요한 15,13 참조)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참된 사랑’을 위해 스스로 가난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정의 중심으로 모시고 그분만을 주님으로 섬겨야 합니다. 가난한 이들에 대한 무관심과 냉대는 하느님에 대한 무관심과 냉대वाद 같습니다. 온갖 형태의 가난에 짓눌린 사람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가집시다. 여러 가지 이유로 가족들이 함께 살지 못하는 가정들, 집이 없거나 일자리를 찾지 못한 가정들, 그 밖의 이유들로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가정들을 향해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다가갑시다. 도덕적으로 빈곤하고 윤리의식이 빈약한 가정들에게는 복음적 가치관과 건강한 의식을 전달합시다. 위기에 놓인 부부들과 이미 별거 중인 가정들에게도 화해할 수 있도록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가까이 다가갑시다. 그리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참으로 행복한 가정, 참으로 복된 가정으로 거듭 태어나길 기원합니다.

2014년 12월 28일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에
주교회의 가정사목위원회 위원장 **조 환 길** 대주교

거룩한 상징, 분향(焚香, incensare)



“주님께 올리는 기도 분향 같게 하옵시고, 처든 손 저녁 제사 같게 하시옵소서.” 미사 때 봉헌성가로 자주 부르는 가톨릭 성가 510번의 첫 소절로 인용된 시편(141,2) 구절은 분향의 의미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향을 피우면 향기로운 연기가 피어 오르듯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여쁘게 받아주시기를 바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느님께 제물을 태워 봉헌 할 때 향 가루도 함께 태웠으며 이와 별도로 분향 제단을 만들어 아침마다 하느님께 향을 피워 올리기도 했습니다. 또 분향 제단이 있는 곳은 지극히 거룩하신 하느님께서 계시는 곳을 상징하는 <지성소>였습니다. 그래서 분향은 하느님께 바치는 기도와 희생, 공경의 표시이자 거룩함의 표시이기도 했습니다.

분향은 대축일뿐만 아니라 어느 미사 때나 할 수 있습니다. 성체 강복 때와 성당 봉헌, 장례 예식에도 분향하는데 그 기본적인 의미는 공경과 기도, 거룩함으로 요약됩니다. 성당 봉헌식에서 향을 피우는 것은 성당이 하느님께 봉헌된 거룩한 곳임을 뜻합니다. 또 장례 때에 시신에 향을 피우는 것은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지체였고 이제 죽음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상 봉헌에 합쳐져 마지막 날 부활하게 될 고인의 육신이 하느님께 바쳐진 제물임을 드러냅니다.

미사에서는 우선 입당 행렬 때에 분향을 하는데 이는 공동체 전체를 축복하고 거룩하게 한다는 표시입니다. 십자가와 제대에 향을 피우는 것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제대와 십자가에 대한 흠숭과 공경의 표시이며 복음을 선포할 때 복음서에 분향하는 것도 같은 의미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는 향기처럼 축복이 되기를 바라는 뜻입니다. 봉헌 때는 제대 위에 놓인 예물과 제대에 분향하는데 이는 예물과 기도가 향이 타오르듯 하느님께 앞에 올라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 이때에 사제와 신자들에게도 분향을 합니다. 이는 신자들이 하느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된 신분임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사제가 빵과 포도주를 축성한 후 높이 들어 올릴 때에 하는 분향은 말할 것도 없이 공경과 흠숭의 표현입니다. 이 밖에 성체 강복 때에 성체를 높이 들어 현시할 때에도 마찬가지 의미입니다.

제단에 향을 피울 때 우리는 하느님을 공경하며 우리 자신을 바쳐 하느님께 봉헌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것을 다짐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피어오르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2코린 2,15) **편지**

브렌든의 샌드위치

백혈병으로 2주 밖에 살지 못한다는 판정을 받은 11살짜리 어린 소년 브렌든이 차를 타고 엄마와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떠난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히 이별한다는 것, 어린 소년 브렌든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을까요?

“남은 시간동안 하고 싶은 소원을 말해보렴.”

세상에서 가장 꺼내기 힘들었던 엄마의 한마디였습니다. 그때 브렌든의 눈에 노숙자들의 캠프가 보였습니다.

“저 사람들 모두에게 샌드위치를 만들어주고 싶어요.”

너무나도 천사 같은 말이었기에 너무나도 가슴 아팠던 브렌든의 마지막 소원은 우연히 인터넷에 올라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그 사연을 본 한 대형마트에서는 식재료를 무료로 보내주었고 이웃 주민들은 하던 일을 미루어 두고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미국 전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부금을 보내왔습

니다. 그렇게 작은 천사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모여든 수많은 도움의 손길들

과 함께 한 브렌든의 샌드위치는 순식간에 미국의 노숙자들에게 퍼지기 시작했고 2주 동안 3천 500여 명의 노숙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브렌든에게 수많은 노숙자들이 샌드위치를 받았다고 알려주자 소년은 너무나 행복해하며 말했습니다.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숨이 멈추는 순간까지 저는 이제 행복할 것 같아요.”

그리고 천사가 남기고 간 한마디.

“비록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꿈을 잃지는 마세요. 제 소원도 결국 이루어졌잖아요.”

그 말을 마지막으로 다음 날 엄마의 품속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금주의 성인

12월 28일	성녀 돔나(동정 순교자, 303년), 성 돔니오(신부, 로마, 4세기), 성 인테(순교자, 303년)
12월 29일	성 다윗(왕, 예언자, 구약인물, 이스라엘, BC 10세기), 성 트로피모(바오로의 제자, 주교, 1세기경) 성 토마스 베케트(주교, 순교자, 캔터베리, 1118-1170년), 성 크레센시오(순교자)
12월 30일	성 사비노(주교, 순교자, 아시시, 303년), 성녀 아니시아(순교자, 테살로니카, 304년) 성 아니시오(주교, 테살로니카, 410년), 성 에그윈(주교, 우스터, 717년)
12월 31일	성녀 멜라니아(과부, 자선가, 383-439년), 성 실베스테르 1세(교황, 335년)
1월 1일	성 알마치오(순교자, 400년경), 성 에우젠도(수도원장, 콘다트, 510년경) 성녀 에우프로시나(동정녀, 알렉산드리아, 5세기경), 성 윌리엄(수도원장, 다종, 962-1031년) 성 오딜로(수도원장, 클뤼니, 961/962-1049년), 성녀 판체아(수녀원장, 로소리, 530년경)
1월 2일	성 그레고리오(주교, 교회학자, 교부, 나지안주스 329-389년) 성 (대)바실리오(주교, 교회학자, 교부, 329-379년), 성 빈첸시아노(은수자, 672년) 성 아달하르도(수도원장, 코르비, 753-827년), 성 마카리오(신부, 수도원장, 알렉산드리아, 394년)
1월 3일	성 고르디오(백부장, 순교자, 카파도키아, 304년), 성 안테로(교황, 순교자, 236년) 성녀 제노베파(수녀, 파리, 419-512년), 성 프리모(순교자, 320년) 성녀 베르틸리아(과부, 마레이유, 705년)

■ 동화사 주지 스님, 성탄맞이 교구장 예방 ■ 요셉의 집 배식 봉사



교구장 조환길(타대오) 대주교님께서는 12월 17일(수) 오후 3시 교구청 본관 회의실에서 동화사 주지 덕문 스님과 일행의 성탄 축하 인사를 받으시고 환담을 나누셨다.



대주교님께서는 교구 사제단 5명과 함께 12월 19일(금) 오전 10시 10분부터 오후 1시까지 무료급식소 요셉의 집에서 배식 봉사를 하셨습니다.

사진 제공: 가톨릭 신문

❖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성경통독을 시작하면서... ❖



요즈음은 성경에 대해 관심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성경 공부도 활발하고 본당들에서 또 개인적으로도 많이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구 내 분위기에 발맞추어 올 한 해 동안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교구민 모두가 다시 한 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본당에서나 개인적으로 이미 시작하신 분들은 그대로 계속 읽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하는 성경통독'의 지향은 우리 각자의 복음화입니다. 매 주보를 통해 읽으실 범위와 읽으시는 데 도움이 될 간략한 안내를 실어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 하면서 하느님 말씀의 책 완독이라는 부듯한 결실을 우리 모두가 맺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문의_교구 성서사도직담당 박상용 요한 신부, 250-3070

우리도 성가정을 본받아



미사안내

성모기사회 신심미사

1월 3일(토) 10:00 프란치스카눔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푸른군대) 첫 토요 신심미사

1월 3일(토) 11:00 성모당

성소 | 피정

예수성심에로의 초대

기간: 1.4(매일 첫주) 14:00~17:00

대상: (여)중·고~35세 미혼

주최: 예수성심시녀회 수녀원

신청: (010)2649-2045

내적여정 피정

기간: 1.16(금) 20:00~17(토) 14:00

주최: 올리베타노성베네딕도 수도회

문의: 안젤로 수사, (010)3664-3986

교육 | 모집

대구대교구 가톨릭필하모닉오케스트라 신규단원 모집

각파트 기악전공자 0명(학부 재학생 가능)

접수마감: 12.31(수)

문의: (010)8996-8675

홈페이지: www.catholicphil.org

프란치스카눔 교육생 모집

과목: 가곡/발성법/키보드/심리상담

장소: 프란치스카눔 (월배성당 뒤)

문의: (070)4266-0047

2015학년도 전기 추가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계절제) 신입생 모집

접수기간: 1.5(월)~1.14(수)

분야: 17개 전공, 교원자격증 발급
http://edu.cu.ac.kr 모집요강 참조
문의: 850-3505

바로로 모래놀이치료 상담센터 안내

장소: 샬트르성바로수녀원 본원

대상: 심리적, 정서적도움이 필요한분

강사: 박지선(예노파) 수녀

(모래놀이 전문치료사)

문의: (010)4600-2433 / 659-3333

2015 전기 2차 대구가톨릭대 대학원생 모집

일반, 특수대학원(몬테소리대학원 신설)

접수기간: 1.6(화)~14(목)

문의: 850-3583(일반)

660-5512~3(특수)

http://www.cu.ac.kr

제7기 성교육전문강사 양성과정

기간: 1.12(월)~16(금)

문의: 대구청소년성문화센터

653-7755(www.dgsay.net)

대전가톨릭대학교 혼인과 가정 학생 모집

기간: 2.6(금), 17:00까지

서류: 원서, 추천서 / 접수비: 1만 원

전형방법: 면접 2.9(월), 10:00

모집인원: 일반전형과 청장 00명

제출처: 대전가톨릭대학교로 30 평생교육원

살레시오회 돈보스코직업학교 학생모집

만15~23세 남자, 1년기계가공조립과정, 00명, 기계가공, CAD/CAM, 자동화기계, 인성교육, 교육비/기숙사비 무료, 훈련수당 지급, 고검반운영, 방통고 편입학지도, 취업알선, 면접전형
문의: (02)828-3600

가톨릭상지대학교 2015학년도 신입생 모집

※안동교구에서 운영하는 전국 유일의 가톨릭 전문대학

정시1차 모집: 12.19(금)~1.2(금)

모집요강은 대학 입시홈페이지 참조

http://ipsi.csj.ac.kr

문의: 교무처, (054)851-3011, 14

여대생 기숙사(과달루페집) 종교 무관

위치: 대전 서구 갈마로 187-1

주최: 성체선교콜라라수녀회

문의: (042)534-8876

인천교구 마리스텔라 실버타운 입주자 모집

국제성모병원, 성모요양원과

함께있는 264세대 실버타운

성당, 헬스장, 사우나, 물리치료실 등

각종편의시설과 천마산 등산로 조성

위치: 인천 서구

문의: (032)280-1500

백내장수술, 근시교정수술
대구안과
DAEGU EYE CLINIC
의학박사 전문의 이 호 성(아오성당)
의학박사 전문의 조 영 수(다미아노)
☎(053)651-2233
남구 월배로 468 (구)달성군청자리

보건복지부 인증의료기관
노인성 질환 전문요양
매일미사 봉헌, 영성치료
2014. 11~2018. 11
(제)대구구천주교유지재단
성요셉요양병원

포장이사는
천사익스프레스
전국대표전화 1644-2455
고객상담 080-118-1004
김태기(안토니오) 011-503-2404

행복한 재할·요양 병원
노인성 질환 전문요양
원목실 운동, 월례미사 봉헌
원목팀장 김 미 형(요세파나)
이 범 수(대전안드레아)
☎(053)426-6000 (중구 보건소 옆)

이시우 신경
http://적추외과 외과
척추내시경, 현미경레이저, 디스크수술
(척추수술 5,000례 시술)
☎ 652-0119 원장 이시우(사도요한)
내당역 3번 출구 앞 반고개에 위치

100년대학 대구가톨릭대학교
차이나포럼 21기 원우회
·개강: 2015.3.18(월) 19:00 (현재 접수중)
·장소: 대구가톨릭대 평생교육원 (감삼동)
·내용: 석식, 명사특강, MT, 중국현지학습 등
·수업료: 100만 원 (6개월 과정)
교수/원장/경영학박사 김 영 택(바오로)
010-9494-8169

인공신장실
야간투석
서부영남내과
영남의과대학교수 원장 김 영 진(안드레아)
☎ 053)656-7533

미소나리 출장뷔페
미소나리
에식뷔페, 기업체행사
각종 야외행사, 성당행사, 장례뷔페
대표 양 에 향(마리아)
사회적기업 (주)서구웰푸드
문의전화 053)555-4843
http://www.미소나리.kr

행사 | 모임

제24회 성 이윤일 요한제에 초대

9일 기도미사: 1.12(월)~20(화) 15:00
단, 토 17:00

순교기념미사: 1.21(수) 17:00

주제: 은총과 영광의 200년

문의: 관덕정순교기념관, 254-0151

교육 | 모집

학생 후보 기자단 모집

신청: 1.2(금)까지 서류 제출

대상: 초4~고2(2015년 기준)

활동: 월모임, 입단캠프, 문학기행 등

문의: 교구 청소년국, 250-3064

틴스타(청소년성교육) 워크숍

기간: 1.13(화)~16(금) 9:00~17:00

장소: 앞산빌 북카페 3층 / 18만 원

대상: 성교육에 관심과 봉사에 뜻이 있으신 분 및 각 본당 교리교사

문의: 봉사자, (010)9544-1838

시니어평생대학 봉사자 프로그램 연수

일시: 1.19~2.9(매주 월) 9:00~15:00

장소: 별관 대화합실, 교육원 나동 대화의실

대상: 본당 시니어평생대학 봉사자

신청: 3만원(중식제공) 1.11까지(공문참조)

문의: 노인사목담당, 250-3076

기초반 수학 교실 개강

기간: 1.4~4.5(매주 일) 14:00~16:00

장소: 계산성당

수강료: 3개월 7만 원, 교재비 별도

신청: 청각장애인선교회,

254-3423 / (011)809-0447

가톨릭여성교육관 강좌

발성·가곡성가: 1.6(화) 13:30

난타·고전무용: 1.5(금) 9:50

왕초보·관광영어: 2.6(금) 11:00

건강태극권: 1.9(금) 12:30

문의 및 신청: 254-6115

바오로딸 행복한 책읽기

시간: 1.7(매주 수) 10:00~12:30

장소: 공평동 바오로딸서원

내용: 자아성장 및 신앙의 성숙

회비: 12만 원(10회), 대상: 40~50대 여성

문의: 장그라시아 수녀, (010)7449-1117

채용 | 안내

큰고개성당 사무장 채용

접수: 1.18(일)까지

구비서류: 이력서, 본당신부 추천서

면접: 2.1(일) / 문의: 959-1223

사회복지회,생명사랑나눔,운동본부

각 본당에 설치된 헌옷수거함에 사랑을 전해주세요. 헌옷,가전,기타제품 등 해외난민지원사업 및 어려운 이웃을위해 사용되오니 많은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의: 555-4846 / 253-9991

교구 법원 공시

아래에 공시되는 분은 교구법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혼인에 대해 문의할 것이 있습니다.

성명: 정은경(수산나), 이지숙

문의: 253-9550

2015년 대구주보 광고 추가 접수

추가 일자: 8월 9일, 23일

문의: 교구 문화홍보실,

250-3048~9

대구평화방송(FM 93.1) 라디오 특집 프로그램!

대구대교구 원로 사목자와 원로 수도자의 삶을 나누는 휴먼 다큐 '임파라 사랑따라' (대구평화방송 홈페이지 다시듣기 가능)

시간: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 5분~12시

(주파수 안내: 포항 96.9MHz, 안동 100.7MHz, 김천 100.5MHz)

1월 3일(토), 10일(토), 17일(토), 24일(토)

왜관 수도원본원장 이석진(그레고리오) 신부

1월 31일(토)

왜관 수도원 이석철(미카엘) 수사

※ 특집 프로그램은 수술 전문 대구안과의원 후원입니다.

“겨울방학 특집 가족캠프”
일본 성지순례 문화탐방
나가사키, 운젠, 구마모토, 아소 (4일)
※ 출발일 - 1월 5일, 28일
T. (053)253-3399
조 철 래(유스티노) 흠 미 최(안젤라)
(주)성지여행

since 1999
성모아이한의원
감기출입/성정(식욕부진·수면장애)/아토피/아소아간질(경기)/틱·ADHD/발달장애
한 의 학 박 사 동국대학의학과 외래교수 **김 성 철(비오)**
대표번호 **1588-3386**
대구 범어역 3번 출구 애플타워 8F
서울 강남역 5번 출구 강남메디타워 4F

건어를 호성상회
(서문시장 내 주차빌딩 맞은 편)
김, 멸치, 산모용 미역, 안주, 반찬류
배호성(헨리고), 박필교(율리안나)
☎ (053)255-9077
010-9447-5193

알아 두면 참 편한
계산성당 연도실
- 가톨릭 신자만을 위한 서비스
- 응구에서 발인까지 모든것
(장례절차/행정서류/성당에서 도와드립니다)
상담안내 **256-2046**
24시간 상담가능/도우미·상담사 무료

해아림한의원
소아클리닉 - 틱, ADHD, 아소
마음클리닉 - 공황, 불안, 불면
원장 **김 대 역(안드레아)**
2호선 수성구청역 4번출구 승원학원옆
예약 : (053)751-0071

코리아알트만 결혼정보회사
미혼 남녀의 결혼을 상담합니다.
대표 박복순(오틸리아)
지하철 2호선 대구은행역 2번 출구
국민은행 옆 두번째 건물 4층
TEL 743-4488 FAX 744-1594

밝은눈안과
원장/전문의 **임홍식(라파엘) 장주희(헬레나)**
백내장수술 전문 병원
달성고 맞은편 654-9660
지하철2호선 두류역(9번출구)앞

유방·갑상선 전문 의사
마리아유외과
대표원장 **김 정 경(안젤라)**
반월당역 22번 출구 농협 3층 (주차 가능합니다)
예약전화 **053)252-6875**